

이사야 예언의 주요 특징

이사야가 한 예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 고대 문서(이사야서)를 둘러싼 비밀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 문학적 분석의 다양한 양식인 구조적, 유형론적, 수사적 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 각각의 기법은 독특한 통찰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1. 이사야의 예언은 다른 두 시대를 동시에 언급한다

내가 공부했던 예루살렘의 랍비 학교 교장은 이사야의 글이 다른 두 시대에 동시에 적용된다고 가르쳤다. 그 두 시대는 (1) 이사야의 시대와 (2) "마지막 날" 또는 "종말" (*'aharit hayyamim*)이라 불리는 시대이다. 그에게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증거는 없지만, 그것이 유대인 전통이라고 말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박사 과정을 밟다가 그 증거를 이사야서의 전체론적 문학 구조에서 발견했다. 그 구조에 의거하면,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다. 선형 구조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세기를 아우르는 여러 사건 주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 겹쳐진 동시적 구조는 이사야서 전체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시간은 진정 마지막 날 또는 종말이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종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이사야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사야는 요한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시현으로 보았다. 이사야는 자신의 책에서 동시적 문학 구조를 사용하여 종말론적 예언을 담는다. 그런데 그 예언은 역사, 즉 그가 살던 시대와 바로 뒤이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근간을 두기에, 과연 종말이 그러한 고대 국가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한 나라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날에 그 국명이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답은 종말이라는 맥락에서 고대 이름이 *암호명*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국가들을 같은 이름을 가진 오늘날의 국가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이사야의 예언을 중동의 지리에 국한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사야의 암호명을 이해하는 열쇠는 간단하다.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국가들에 대해 이사야가 묘사한 내용을 오늘날의 국가들에 적용해 보라. 예를 들어 애굽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초강대국이었다. 하지만 당시 애굽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쇠락의

길에 접어든 국가였다. 그 이전에는 애굽이 또 다른 초강대국이던 앗수르를 막아 내는 세력이었다. 앗수르는 북쪽의 군사 왕국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다. 실제로 앗수르는 결국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이사야는 앗수르가 고대 세계를 멸망시킨 일을 종말에 인류가 맞게 될 멸망의 비유로 사용한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새 “앗수르”와 새 “애굽”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종말의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나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사야가 그들을 어떻게 특징짓는지를 아는 것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비결이다. 새 “앗수르”와 “애굽”이 서로 대립하는 두 정치적 실체로 나타나듯이, 새 “바빌론”과 “시온”이 서로 대립하는 두 영적 실체로 나타난다. 이사야는 바빌론을 구조적으로 사람들과 장소로 정의한다. 즉, 바빌론은 악이 무르익고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신다. 이사야는 시온을 또한 사람들과 장소로 정의한다. 즉, 시온은 악행을 회개하고 마지막 날에 사로잡힌 곳에서 탈출하여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이러한 문학적 정의에 입각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사야의 글이 주로 유대인만 관련 있다고 가정하면 잘못된 것이다.

2. 이사야의 언약 신학 체계는 제왕-제후 조약과 유사하다

우리는 히브리 선지자들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비견할 만한 사상의 혁신가들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합리적인 사상을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전적으로 자신만의 추리력에 의지하여 삶을 이해하려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에 근거한 영적 유산을 확립했다. 그들은 그 토대 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류에 대한 이해, 영원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확대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근동의 제왕-제후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은 외견상 이러한 신성한 근본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왕-제후 모델이 이스라엘 언약 신학의 중심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것은 아닐까?

고대 근동의 제왕-제후 관계란 제왕이 한 명의 제후 또는 여러 제후들을 임명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제국을 다스리게 한 것을 말한다. 제왕은 제후를 임명하여 각각 왕으로서 제국 일부를 다스리게 했다. 하나의 도시 국가와 인접한 소도시 및 마을로 이뤄진 이 “약속의

땅”은 제왕과의 조약 또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제후의 봉토가 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조건부였다. 그 약속의 이행은 제후가 제왕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아니면 변절하여 다른 제왕에게 충성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조약의 표현에서 제후가 제왕의 명령을 따르거나 약속의 조건을 지키는 것은 제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후가 약속의 조건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지에 따라 축복 또는 저주가 내려졌다.

제왕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충성스러운 제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면 그를 지키고자 군대를 모아 제후를 보호했다. 누구라도 제후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그런 자를 제왕과 제후의 “공동의 적”이라 여겨 전멸하고자 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제후가 모든 상황에서 제왕에게 충성스러움을 입증하면, 제왕은 법적으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 순간 제왕과 제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 제후가 제왕과 맺은 약속은 조건부였다. 다시 말해 그 약속의 이행은 제후가 제왕에게 충성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은 *무제한적* 또는 “영원한” 것이 되며 제후의 후손들에게 축복된 유산이 된다.

제왕은 제후가 제왕의 법을 지키고 제후의 백성이 제후의 법을 지킬 때 제후의 백성을 보호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인들의 압제하에 중대한 위협에 처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은 주로 하나님의 보호를 얻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 조건으로 왕은 하나님의 제후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왕이 되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앗수르 군대 십팔만 오천 명이 쳐들어와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이 존망의 위협에 처했을 때 다윗과의 약속의 보호 조항이 작동함을 목격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이 히스기야의 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대를 쳤다.

3. 이사야는 역사적 전례를 장차 일어날 일의 예표로 사용한다

히브리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발상을 추가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 받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 천재이기도 했다. 이사야의 글에는 다층으로 중첩된 문학적 장치가 있다. 이런 예언 기법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통해 계시를 체계화했는지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적은 말로 가장 많은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으므로,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대 근동의 모든 문학 형식을 사용했다. 이사야는 비록 이전 선지자들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전과 이후의 선지자들을 능가했다. 더러 한 명 이상의 “이사야”가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의 책에서 볼 수 있는 다층으로 중첩된 특징은 그런 주장이 잘못임을 보여 준다.

이사야가 사용하는 한 가지 문학 기법은 고대 사건과 유사한 종말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사야는 전적으로 이 예언 방법을 사용한다. 그의 예언은 그런 식으로 히브리 선지자의 전통에 기반을 두었기에 언제나 친숙해 보인다. 실제로 그것은 과거에 전례로 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미래의 예표 또는 패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그러한 예표 위에 자신의 예언을 쌓아 올렸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고대 인물이나 국가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 인물이나 국가를 마지막 날에 일어날 뭔가를 예시하는 전례로 정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에, 이사야는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확신에 따라 역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이사야 글에서 삼십 개 이상의 고대 사건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주요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사야는 그러한 예언들을 책 전반에 흩어 놓지만 도미노처럼 서로 관련되게 엮어 놓는다. 예를 들어 한 구절에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담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절에는 다른 조합이 사용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새로운 혼돈, 창조, 낙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박, 유월절, 탈출, 광야에서의 유랑, 땅의 정복, 땅의 상속, 성전 재건 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기는 하지만, 세계가 하나의 원대한 종말 시나리오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할 때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다르다. 사실 “종말”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그 시나리오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뤄질 이 역사의 반복은 모든 인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거의 모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 점쟁이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이사야 46:10) 알리신다. 하나님은 끝이 시작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조율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했던 이전 사건들은 종말 사건들을 미리 암시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이 자신의 신성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한 고대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사야의 경고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사람과 사건들이 미래의 사건들을 예시한다는 원리에 대한 확신은, 그러한 원리와 위조품,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별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4. 이사야는 사람들의 특징 묘사에서 일곱 가지 영적 등급을 나타낸다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그저 부수적으로 딸려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 이사야는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을 묘사하지만, 이들은 또한 종말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시한다. 또한, 그들은 여러 영적 부류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을 말할 때, 때로 짝을 이루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짝을 이루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물질주의적인 범주를 표현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 그들은 깨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세상에 닥쳐올 날에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실, 야곱/이스라엘 부류의 사람들은 한층 더 낮은 압제자와 악인의 부류인 바빌론으로 내려가기 쉽다.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실 때 충실함을 입증해 보인 부류의 사람들은 시온/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또한, 이사야는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극화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빌론 부류에 속한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소멸한다. 하나님은 시온/예루살렘만을 구원하여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신다. 그 사이에 있는 야곱/이스라엘 부류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 감에 따라 없어진다.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시온/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바빌론으로 내려갈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시온/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부류로는 하나님의 “종”과 “아들”이 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성약을 맺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시온/예루살렘 부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다음 단계의 영적 등급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전체 종과 아들의 부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이 수행할 사명의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지상을 다스리러 오시도록 길을 준비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듯이, 그 종은 현세적 구원자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시온으로 구출한다.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은 그들의 제왕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조건적인* 성약 관계를 맺는 데서 한층 위로 올라간다. 그들이 모든 조건 아래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면, 그들이 맺은 성약은 *무제한적인* 것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된다.

그러나, 그 등급이 끝이 아니다. 아들들/종들 위에 스랍들/구원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천사로 활동한다. 그리고 그들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가 계신다. 이사야는 이 영적 사다리의 각 등급에 오르는 것을 재탄생 또는 재창조로 묘사한다. 각 등급에 오를 때마다 후보자는 더 높은 영적 성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 이름과 직위를 받게 된다. 각 등급을 올라가면서 후보자는 더 높은 성약과 관련된 더 높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게다가 각 등급의 오름에는 일시적인 내려감도 포함한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점차 강도를 높여 가며 일련의 시련을 통해 후보자의 충성을 시험할 때 일어난다. 그러한 시련은 흔히 아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온다. 가장 낮은 등급인 부류는 악을 궁리하고 조종하는 멸망의 아들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5.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예언을 제시한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같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왜 우리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메시아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잘 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유대인 가운데 가장 명석한 지성들과 가장 헌신적인 학자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부지런히 분석해 왔고 후세에 충실히 전해 왔다. 이와는 달리, 이러한 예언들은 이방인과 동일시되는 기독교인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흔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믿기만 하면 유대인 경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 듯이 행동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복음인 양 가르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는 별개인 두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메시아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세적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역할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나타나는 맥락에 주의해야 한다.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행태는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종”에 관해 말씀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두 경우 모두 마지막에 이뤄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본질적으로 현세적인 사건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특히 “종”과 “아들”이란 말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통합해서 이해할 때 지배자와 제후의 관계가 바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 동시에 여러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고 오직 한 명의 선지자를 부르신다.

또한, 하나님의 종-아들이 백성들을 속박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결속하며, 적들을 정복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 이사야가 충분히 예언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적으로 과거의 예표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과거에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한 한 사람의 예표를 그는 어디서 찾았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는 **복합** 예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 한 명이 과거의 여러 지도자가 했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종-아들은 그 지도자들이 했던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좋은 모범이 된다. 그런 이유로, 이사야는 그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고레스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인물로 묘사한다.

그런데, 고레스의 경우, 그 패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의 “고레스”가 단순히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합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어떤 때는 고레스와 모세가 하나의 예표로 결합되고(이사야 44:27~28), 또 다른 때는 고레스와 다윗이 결합되기도(이사야 45:1) 한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아들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는 이사야 53 장 1~10 절에서만 **영적**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것을 대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아들과는 달리, 이사야 53 장 1~10 절에서 이사야가 묘사한 인물은 바로 여호와 본인이다. 이사야 14 장에 나오는 바빌론 왕을 이사야

52~53 장에 나오는 시온 왕과 나란히 놓는 문학 구조를 살펴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시온의 왕임을 알 수 있다.

6.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중요한 인물의 별칭으로 은유를 사용한다

이사야가 깨끗한 동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깨끗하지 않은 동물은 이방인을 빗대어 말한다는 어떤 랍비의 가르침에 나는 매료되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수소와 나귀, 그리고 복천년에 있을 양과 사자 간의 화합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 랍비가 가르쳤던 많은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었다. 이후 나는 다른 것을 뜻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의미상 아주 밀접한 평행 어구의 관계망을 이사야서에서 발견했다. 한 구절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무*는 사람을, *숲*은 성읍을, *산*은 국가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 날의 주요 인물들이 의로움이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 주는 한편, 화나 분노의 화신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그같이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에 의지했을까? 첫째, 이사야는 종말에 관해 예언할 때 주로 과거의 전례를 *예표*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야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둘째, 이사야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그의 말을 깊이 연구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가 전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셋째, 그의 글은 외견상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그의 글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편견에 사로잡힌 무관심한 일반 독자로부터 보호한다. 이사야는 그렇게 자신이 택한 간접적인 방법을 고수한다.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 경우,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과거의 예표를 어디서 찾을까? 이사야는 비유의 도움으로 즉, 익명이나 가명을 쓰는 표현 방식에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속박에서 벗어나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돌아온 적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앗수르와 같은 초강대국을 전복시킨 적도 없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과거라는 맥락 내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예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다음과 같은 주요 인물 두 명이 관여함을 보았다. 그 둘은 바로 (1) 앗수르의 폭군-파괴자와 (2) 하나님의 종이자 아들-구원자이다. 따라서 이사야는 필요할 때마다 별칭을 들어 이들에 관해 말할 수 있다. *기치*, *손*, *막대*,

지팡이, 입, 목소리, 불, 칼 등은 문맥에 따라 이들 중 한 명을 나타낸다. 두 사람은 각각 이러한 것들의 화신이다. 반면에 빛과 어둠 같은 표현은 반대되는 이 두 상대를 구별 짓는다.

고대 근동 신화는 이사야가 의지한 또 다른 출처이다. 예를 들어 바알과 아나트가 나오는 우가리트 신화에서 바다와 강은 혼돈의 신으로 바알이 정복해야 할 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말은 앗수르 왕을 일컫는 별칭으로 이사야의 목적에 부합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치켜드시고 강을 향해 손을 펼치심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종-아들이(그분의 지팡이와 손) 앗수르 왕을(바다/강) 이기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보여 주는 도구로서의 이 사악한 통치자는 악한 자를 벌할 막대와 지팡이로 자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막대와 지팡이인 종-아들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사야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밝혀 주는 단서는 이러한 말들의 이중적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구조화된 평행 어구에서 나타난다.

7.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는 전형적인 동화와 유사하다

이사야의 글과 동화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냐며 의아해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공통된 목표는 신랑과 신부가 지상 왕궁이기도 한 하늘 왕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주인공들은 반드시 여러 위험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더 높은 지혜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할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운명이 뒤바뀔 거라는 점을 또한 신뢰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이닥친 어려운 시기, 다른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기네가 겪은 굴욕과 비난—이 모든 일이 결국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즉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경험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 없이는 그들은 결코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동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가는 길은 또한 눈물의 길일 수도 있다. 일곱 부분으로 이뤄진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 점을 설명해 준다. 일곱 쌍의 반대되는 주제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보여 준다. 재탄생 전에 파멸이, 구원 전에 고통이, 승영

전에 굴욕이, 상속 전에 상속권 박탈 등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 번만이 아니라, 사람이 더 높은 영적 등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은 후보자가 더 높은 권능을 따르는지에, 일시적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도 신성한 권고를 따르는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신랑과 신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동화와 마찬가지로,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는데도 모두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에서는 처녀인 시온의 딸이 이야기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악을 회개하고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녀는 신랑인 여호와께서 지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결혼한다. 그분은 시온의 왕으로서 자신이 백성을 위해 세운 패튼을 본인 스스로가 따름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이루신다. 신부를 속량하기 위해 값을 치르면서 그분도 파멸과 고통, 굴욕, 상속권 박탈 등을 겪으셨다. 그분이 영광으로 올라가심이 다른 모든 것보다 크기에 또한 일시적인 내려가심도 크다. 또한, 여호와처럼 하나님의 일부 종과 아들들도 처녀 시온과 결혼한다. 그들은 구속주의 본을 따라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도 똑같이 끝없는 기쁨을 얻는다.

하나님의 종과 아들들에 반대하는 자는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인 앗수르의 포악한 왕이다. 그는 동화에서 악당 역할을 하는 괴물이나 거인과 비슷하다. 한편, 마녀나 사악한 계모에 필적하는 음녀 바빌론은 처녀 시온을 압제한다. 시온을 구조하기 위해 요정 대부 및 대모에 상당하는 천사가 온다. 그들이 지닌 신성한 권능은 악의 흐름을 되돌린다. 종국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추악한 의붓 자매에 해당하는 인류는 대부분이 처녀 시온에 대적하는 편을 든다. 그러나 그녀를 증오하는 모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녀가 낙원의 영광을 입을 때 지구를 상속받는다. 그들만이 평화의 시기인 복천년 중에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